



밥상공동체 · 서울연탄은행

1577-9044, 02)934-4933 mail@babsang.or.kr www.babsang.or.kr

담당 최윤석(070-4140-5098) 부장 김현익 대표 허기복 목사

보도자료

1,500만 장, 함께 만드는 생명의 온기

“이른 추위와 연탄 가격 인상 속 이중고”

서울연탄은행, 1,500만 장 ‘생명의 온기’ 나눔 재개

- 일 시 : 2026년 10월 10일(토) 오전 10:00
- 장 소 : 서대문구 홍제동 개미마을(세검정로129-23 안쪽 공터)
- 주 관 : 밥상공동체복지재단 서울연탄은행(담당 최윤석 간사 02-934-4933)

◇ “3.65kg 연탄 한 장, 달동네 어르신에겐 하루를 버텨낼 ‘생명의 온기’입니다”

- 연탄 가격 인상... 가파른 비탈길 앞 벼랑 끝 내몰린 6만 연탄가구
- 서울연탄은행, 10일(토) 서대문구 개미마을서 2026 연탄나눔 재개식 개최
- ‘1,500만 장 온기서약’과 함께 출발... “오늘의 온기를 다음 사람에게 전해주세요”

“다리 힘도 없고 무릎도 아파 계단 몇 개 오르기도 힘든데, 연탄값은 오르고 가파른 언덕이라고 배달 트럭마저 안 올라온다니 눈앞이 캄캄했지. 그래도 추워질 때면 잊지 않고 찾아오고, 연탄 주는 손길들이 있어 ‘올해도 잘 버텨낼 수 있겠구나’ 눈물이 나...”

서울 서대문구 개미마을 산비탈 낡은 집에서 홀로 겨울을 맞이하는 박 모(84) 어르신 이 아픈 무릎을 두들기며 전한 이야기다. 가파른 골목길 끝, 한파보다 매서운 난방비 부담과 고립의 두려움 속에 놓인 기취위기 취약계층을 위해 밥상공동체복지재단 서울연탄은행(대표 허기복)이 2026년 겨울을 여는 첫 온기를 지핀다.

서울연탄은행은 오는 10월 10일(토) 오전 10시, 서대문구 개미마을에서 ‘1,500만 장, 함께 만드는 생명의 온기’를 슬로건으로 2026년 연탄나눔 재개식을 개최하고 동절기 생명의 온기 나눔 대장정에 나선다고 밝혔다.

■ 가격 인상과 배달 기피 속 이중고...한파 앞둔 6만 가구 ‘1,500만 장’ 온기 전달

밥상공동체 연탄은행의 ‘2025년 전국 연탄사용가구 조사’에 따르면, 전국의 연탄사용 가구는 약 6만 가구에 달한다. 이들은 통상 10월부터 이듬해 4~5월까지 약 7개월간 지나긴 추위를 견뎌야 하며, 가구당 한 달에 150~250장의 연탄을 태워야 방안의 냉기

를 쫓아낼 수 있다.

그러나 올해 현장 사정은 어느 때보다 열악하다. 연탄가격 인상으로 공장의 공급 가격이 장당 100원 인상된 데다, 개미마을처럼 경사가 심한 달동네는 장당 몇 백원의 운반비가 추가로 붙는다. 배달비가 올라가는 거에 더해, 연탄 배달 차량조차 진입을 꺼려 연탄을 구하지 못하는 가구가 많은 실정이다. 그럼에도 도시가스가 들어오지 않고 소득도 없는 취약계층은 여전히 연탄이 필요하다.

전국의 6만 연탄가구의 한달 사용량을 250장으로 하면, 한 달에 1,500만 장의 연탄이 필요하고 이들이 안전하게 겨울을 나기 위해서는 전국적인 연탄 나눔 운동이 전개되어야 하는 이유이다.

개미마을 골목길 끝자락에 거주하는 김 모(85) 어르신은 “몸이 예전같지 않아 밖에 나가기도 버거운데, 연탄광에 나가는 일조차 쉽지 않다”며, “지난 겨울에는 아낀다고 연탄불을 줄였는데, 잊지 않고 여기 언덕까지 땀 뻘뻘 흘리며 올라와 연탄을 채워주던 걸 생각하면, 가슴이 뭉클하다”고 말했다.

■ ‘연탄 길’ 밟고 ‘1,500만 장 온기서약’... 봉사자들의 땀방울로 잇는 나눔 연대

이날 재개식에는 자원봉사자 100여명이 연탄 50장씩, 5,000장을 모아 나눔의 의미를 함께 나눈다.

봉사자들은 연탄을 상징하는 검은색 카펫인 ‘연탄 길’을 걸어 입장한 뒤, 대형 전국지도에 서명과 응원 메시지를 남기는 ‘1,500만 온기서약’을 진행한다. 온기서약은 기후위위 취약계층을 위한 1,500만 장 온기 나눔에 솔선수범하고, 자신이 받은 온기를 다음 사람에게 전하겠다는 나눔 릴레이의 약속이다.

기념식 직후 봉사자들은 지계를 짊어지고 개미마을 곳곳을 다니며 연탄가구에 총 4,000장의 연탄을 직접 배달하며, 이번 동절기 첫 온기를 전한다. 아울러 봉사자들에게는 일상 속 기부 문화를 이어가기 위한 ‘연탄 저금통’을 전달해 나눔의 의미를 이어갈 예정이다.

밥상공동체복지재단 허기복 대표는 “연탄 가격 인상으로 취약계층 어르신들의 시름이 어느 때보다 깊다. 연탄 한 장은 단순한 연료를 넘어 우리 이웃을 지키는 **생명의 온기**”라며, “**전국 6만 가구**가 따뜻한 겨울을 날 수 있도록 ‘오늘의 온기를 다음 사람에게 전해주세요’라는 말처럼 많은 개인봉사자 여러분과 시민사회, 기업의 따뜻한 연대와 동참을 간절히 부탁드립니다”고 밝혔다.

■ 온기를 함께하는 따뜻한 손길들

이번 행사에는 코리아에셋투자증권, 더투게더, 한신우동 등 뜻을 함께한 후원 기업을 비롯해 이창용 전 한국은행 총재, 연탄은행 홍보대사인 배우 정애리, 정재훈 전 한국수력원자력 사장, 남재철 전 기상청 청장 등 사회 각계각층의 인사들이 참여해 의미를 더한다. 참석 인사들은 자원봉사자들과 나란히 검은 연탄을 지계에 싣고 개미마을 골

목길을 누비며 연대의 힘을 보탬 계획이다.

봉사활동 후에는 '한신우동'의 푸드트럭 후원으로 현장에서 갓 조리한 따뜻한 우동이 제공된다. 가파른 계단을 오르내리며 땀 흘린 봉사자들과 어르신들이 둘러앉아 한 그릇의 온기를 나누며 2026년 겨울을 여는 첫 나눔의 날을 훈훈하게 마무리할 예정이다.

기후위기 취약계층을 위한 따뜻한 동행에 함께하는 후원 및 봉사 문의는 홈페이지(www.babsang.or.kr) 또는 전화(1577-9044)로 가능하다.

[행사개요]

- 행 사 명 : 1,500만 장 함께 만드는 생명의 온기
- 일 시 : 2026년 10월 10일(토) 오전 10:00 ~ 12:30
- 장 소 :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홍제동 개미마을
- 주 관 : 밥상공동체복지재단 서울연탄은행
- 참여인원 : 총 150명(자원봉사자 100명, 내빈 및 임직원 50명)
- 지원내용 : 연탄사용가구 25가구, 연탄 4,000장 전달
- 주요식순
 - 09:40~10:00 '1,500만 장 온기서약'(대형 전국지도 서명 및 응원 메시지 작성)
 - 10:00~10:50 연탄 길 입장(블랙 카펫) 및 기념식
 - 10:50~11:50 연탄 나눔 봉사활동
 - 12:00~12:30 점심식사 및 마무리
- 당일(10월 10일) 행사 종료 후에 현장 사진을 추가 배포할 예정입니다.

보도자료 담당 : 서울연탄은행 사회복지사 최윤석
(02-934-4933 / 070-4140-5098)

[참고사진]





